하늘사랑

FEBRUARY 2024
vol. 512

2

cover story
고드름 잔
2023년 기상기후사진전 〈입선〉 신찬미

기상청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하게
날씨를 확인하세요

안드로이드 i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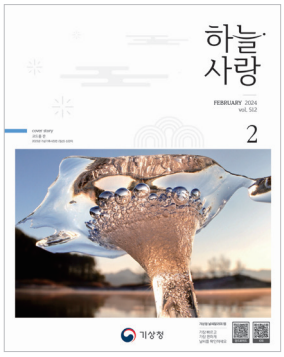
하늘사랑

vol. 512

2

FEBRUARY 2024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11~14층)
전화 (02)2181-0354
팩스 (02)836-5472
E-mail kmanews@korea.kr
발행처 기상청
발행일자 2024년 2월 5일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1693-06
발행인 유희동
편집장 김희철
편집기획 오철규, 마재준, 김지은
디자인/인쇄 사)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인쇄사업단



cover story
고드름 잔
2023년 기상기후사진전 〈입선〉 신찬미

Contents

Special Theme

포커스 뉴스

02
내가 받은 지진정보들, 어떻게 다를까?

04
방재 현장의 목소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l.or.kr

Weather Talk

06 제비꽃

08 날씨와 심리_ 겨울에 붕어빵이 더 맛있는 이유

10 홍콩 여행 최적기는 2월! 홍콩의 춘절 풍경

12 바닷속 기후 이야기

14 시린 겨울철, 체온 올리고 면역력 지키기

Theme Story

16 8시의 남자들, 날씨 알려주는 남자

18 20살, '기상청 사람들'로의 첫걸음
6개월간의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수습 근무 후기

20 슬기로운 인턴 생활!_ 수도권기상청 · 부산지방기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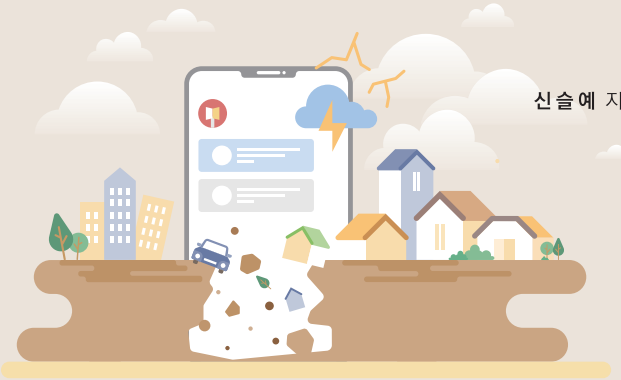
Report

24 Photo briefing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25 Platform

26 오늘, 당신의 날씨

내가 받은 지진정보들, 어떻게 다를까?



신 슬 예 지진화산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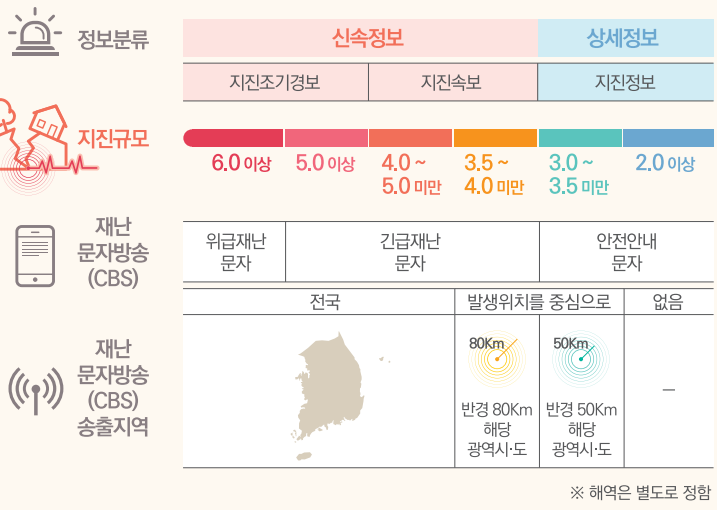
지진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지진재난문자!
우리나라에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위험을 알리는
지진재난문자와 그 밖의 지진정보들에 대해 알아보자.

새벽을 흔든 2023년 경주지진

2023년 11월 30일 새벽 4시 55분경, 경북 경주시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지진은 경주시민을 깨웠고, 지진재난문자는 전 국민을 깨웠다. 경주시민들은 2016년 '9.12지진'보다는 약하나 꽝하는 소리, 땅의 진동과 함께 건물이 흔들려 큰 불안감을 느꼈다고 증언하였고, 충남과 전북에서도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기상청은 빨리 감지된 지진파(P파) 정보만을 활용하여 지진 발생 7초 후 지진속보를 발표하고, 다시 1초 후 전국에 지진재난문자를 보냈다. 당시 경주시로부터 약 300km 떨어진 서울시까지 전송된 지진재난문자에 관하여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오갔다. 그렇다면 기상청은 어떤 기준으로 지진재난문자를 보낼까?

발생 위치와 규모에 따른 지진재난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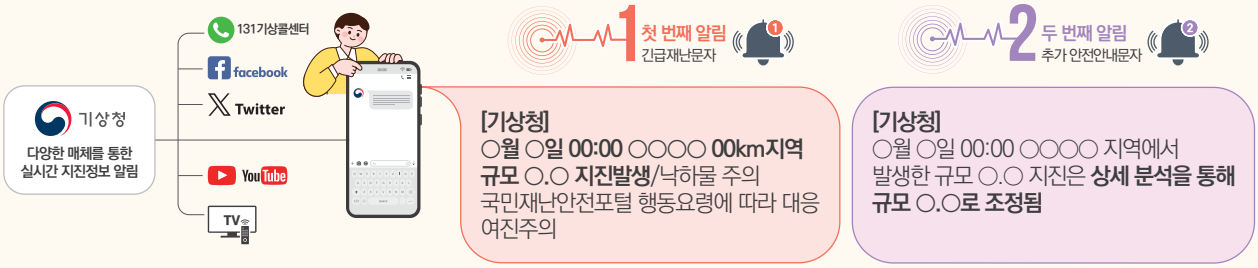
지진재난문자는 지진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예상될 때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휴대전화에 발송되는 지진문자를 말한다. 우선 발생 위치가 내륙인지 해역인지 구분하여 피해를 줄 수 있는 최소 규모를 정하였다. 그리고 규모에 따라 지진 발생 위치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하여 송출반경을 나눠 지진재난문자를 보내게 된다. 내륙은 규모 3.0 이상, 해역은 규모 3.5 이상일 때 지진재난문자를 발송하며, 북한과 한반도 인근 국외 지진의 경우 내륙과 해역 구분 없이 규모 4.0 이상일 때 지진재난



문자를 발송한다. 규모에 따른 송출반경은 국내 지역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규모 3.0 이상 3.5 미만이면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50km에 해당하는 광역시·도에 발송하고, 규모 3.5 이상 4.0 미만일 경우 반경 80km에 해당하는 광역시·도에 발송하며, 그 이상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는 전국을 대상으로 지진재난문자를 발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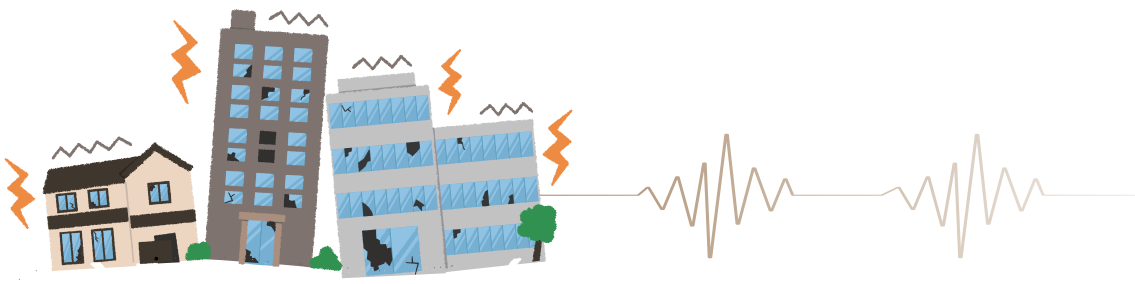
신속성과 정확성 모두를 위한 지진재난문자의 역할 확대

기상청은 지진 발생으로 인한 국민들의 발 빠른 초기 대응과 정확한 지진정보 제공 측면을 고려하여 신속정보(지진조기경보, 지진속보)와 상세정보(지진정보)로 나누어 생산한다. 신속정보는 먼저 도착하는 지진파(P파)를 이용하여 자동 분석한 결과로 신속성에 중점을 두었다. 상세정보는 P파에 이어 도착하면서 큰 진동을 주는 S파를 함께 사용하여 수동 분석한 결과로 정확성에 중점을 두었다. 두 정보는 다를 수밖에 없다. 빠르게 계산된 결과는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지고, 정확한 결과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속성과 정확성의 상충관계(trade-off)는 장수지진에서 뜻밖의 결과를 낳았다. 2023년 7월 규모 3.5 장수지진의 경우 지진속보(규모 4.1)로 전국에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된 후 상세분석을 통해 규모가 3.5로 하향되었다. 당시 지자체에서는 규모 3.5로 지진문자를 재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마치 지진이 두 번 발생한 듯한 혼선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기상청은 지진재난문자를 발송한 후 상세분석으로 변동된 정보를 안전안내문자에 담아 추가로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지구의 울림에 대처하는 방법

아직까지 지진은 예측 불가한 자연재해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진을 대처하는 방법은 진부하지만 간단하다. 지진정보를 확인하고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진정보는 문자로만 제공되는 걸까? 아니다. 기상청 홈페이지 날씨누리, TV, 포털 사이트, 사회관계망 서비스(X, facebook), 131기상콜센터,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상청은 지진재난문자를 선두로 하여 다양한 매체들을 통한 지진정보 제공으로 지자체의 지진 방재업무 지원과 국민들의 지진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방재 현장의 목소리

양민혁 예보국

2023년 10월 19~20일, 다양한 기관의 방재 담당자를 대상으로 우리 청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방재기상다면 플랫폼 구축 계획을 소개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방재기상다면플랫폼의 청사진을 토의하는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방재 업무란?

방재(防災) 업무는 폭풍, 홍수, 지진, 화재 등의 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업무를 말하며, 재해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광범위한 영역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산불, 해양사고, 위험물질 누출·확산 등 사회적 재난도 방재 업무에 포함되어 업무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재 업무의 중요도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5월부터 서비스 중인 기상청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은 기상 관련 재해에 대한 유관기관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위험기상 현상별, 방재업무 유형별로 기상자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예보기술과는 선진예보시스템II 구축('23년~'25년)의 일환으로, 방재유관기관의 위험기상 대응 능력을 한 층 더 높이기 위해 방재기상다면플랫폼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설계 과정에서 방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방재기상다면플랫폼 구축 관련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워크숍 핵심 내용

여러 방재유관기관*이 참여한 이번 워크숍은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토의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통해 방재기상다면플랫폼 구축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 참석 기관: 행정안전부,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경기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자원공사

01 / 현행 방재기상정보시스템 개선·강화 기능 의견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의 기능 중 향후 방재기상다면플랫폼에서 강화·개선이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 참석자들 간 여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토의에 앞서 이루어진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의 부문별 평가에서 참석자들은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기상정보의 다양성과 개인화 서비스(맞춤알람, 관심지역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편의성과 소통 측면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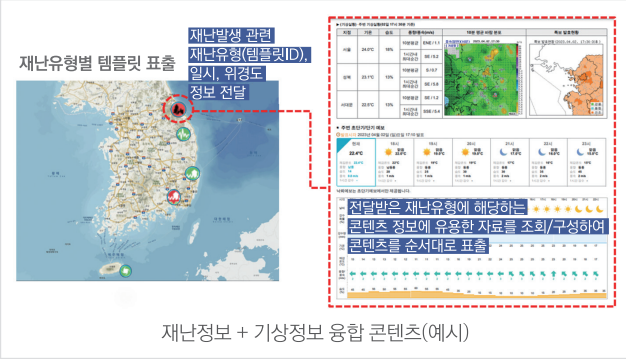
추가·개선점으로 언급되었던 주요 사항으로는 ①방재기상정보시스템 내 보고자료 작성 기능(한글, PPT 등) 구성, ②계절 특화 메뉴 신설, ③메뉴 및 콘텐츠 접근성 개선, ④사용자 의견 게시판 신설 등이 있었습니다.

02 / 방재기상다면플랫폼 신규 서비스 의견

새롭게 구축하는 방재기상다면플랫폼은 기존의 방재기상정보시스템 기능 개선과 더불어, 기상청-방재유관기관 간 협업과 소통을 위한 신규 서비스 구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융·복합 데이터

방재유관기관의 재해·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기상정보와 더불어 활용할 수 있는 방재 분야별 유용한 데이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토의 과정을 통해 위험기상 종류에 따라 실제 방재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융·복합 데이터에 대한 방재 업무 담당자들의 여러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기관의 관심사별로 다양한 융·복합 데이터 유형이 제시되었으며, 공통적으로는 ①특정 지역의 과거 재해·재난 시 데이터(누적강수·누적적설량 등), ②취약계층 및 주택 밀집 지역 정보, ③재난 취약 지역 정보 등이 있었습니다.



재난정보 + 기상정보 융합 콘텐츠(예시)

협업을 위한 양방향 소통 채널

방재기상다면플랫폼 기능 중 소통 채널의 구성과 관련하여, 현재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재유관기관 간 소통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소통 방식에 대한 문제점으로 ①소통매체(외부망)와 업무망(내부망)의 분리로 인한 상황인지 지연, ②제한적인 자료 공유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방재기상다면플랫폼의 소통채널(가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신속성과 편리성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 일치가 있었습니다.

양일간에 거쳐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참석한 기관이 다양한 만큼,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재 업무가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 업무이며, 이를 위해 모든 기관이 한뜻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국민의 안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비꽃

박재용 과학작가

2월 제주에 가면 아직 겨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꽃 잔치가 한창입니다. 한림공원에선 매화가 하얗게 또 붉게 타오르며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서귀포에서 남원읍 사이 올레길을 따라 걷다 보면 뚝뚝 떨어진 동백꽃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붉은 동백꽃 사이를 걸으며 섬의 봄을 만끽하죠. 제주 동쪽 성산의 유채밭에 꽃이 한창입니다. 노란 유채 사이에 가족들이 연인들이 사진을 찍느라 분주한 모습에 절로 눈길이 가죠. 제주의 중산간 이상의 고도에선 겨우내 내린 눈이 녹지 않고 가끔은 새로운 눈이 덧쌓이는 2월이지만 해안을 따라선 매화며 동백, 유채 등이 저마다의 봄을 보여줍니다.

육지로 와서도 마찬가지죠. 얼음이 아직 녹지 않은 늦겨울의 끝에 피는 매화며 복수초, 수선화, 동백, 변산바람꽃 등이 제주만큼은 아니지만 산이며 들에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때쯤 순천만 국가정원이나 남해의 섬들을 방문하면 아직 날 선 바람에 숨죽이며 피어난 꽃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습지를 가득 채운 겨울 철새의 마지막과 함께 남도의 풍광을 만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할 2월에 마주하는 또 다른 꽃은 제비꽃입니다. 제비가 돌아오는 시기에 맞춰 꽃을 피워 제비꽃일까요? 아니면 보랏빛 꽃잎의 모습이 제비를 닮아서 제비꽃일까요? 제비꽃 말고도 노랑오랑캐, 장수꽃, 병아리꽃 등으로도 불린다지요. 이름이 많은 건 그만큼 여기저기 산지사방 곳곳에 피어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다른 꽃들 사이 숨어 수줍게 피어난 제비꽃은 크기도 작아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저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더구나 제비꽃은 2월에만 피는 꽃이 아니라 봄에서 여름까지 불쑥불쑥 피어납니다.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꽃이지요.

하지만 유럽에서 넘어온 월별 탄생화에 따르면 2월은 제비꽃이더군요. 눈에 먼저 들어오는 수많은 꽃을 제치고 있는 듯 마는 듯 피어난 제비꽃이 2월의 탄생화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여신 아테네가 이오가 죽은 뒤 자신의 발아래 피어나게 한 꽃이 제비꽃이라 합니다. 혹은 제우스가 자신의 정인인 이오가 죽어가는 것을 보며 만든 꽃이라고도 하지요. 또 비너스가 제비꽃을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아티스란 양치기를 사랑하던 '이아'. 그러나 아티스를 귀여워하던 비너스는 아들

큐피드에게 명령하여 아티스에게 납 화살을 쏘지요. 납 화살을 맞은 아티스는 이아를 모른 체 했고, 이아는 절망에 빠져 죽습니다. 비너스는 안쓰러운 마음에 그녀를 제비꽃으로 만들어 주었다죠.

중세 시대에는 성모 마리아께 바치는 세 가지 꽃이 장미와 백합 그리고 제비꽃이었다고 하죠. 장미는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백합은 위엄을 그리고 제비꽃은 성실과 겸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비꽃은 워낙 종류도 많고 꽃의 색도 많아 꽃말도 그에 따라 다양한데 제게 눈길을 끈 것은 '양보, 겸손, 소박, 가난한 행복, 충실'과 같은 단어들입니다. 중세 시절 성실과 겸손을 상징하던 것과 일맥상통하지요.

키 큰 나뭇가지마다 피어난 화려한 꽃들과 무릎께까지 웃자란 풀의 제일 위에 달린 커다란 꽃들을 보다 제비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땅바닥에서 겨우 3~4센티미터, 새끼손톱 크기의 그 꽃을 보려면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낮추고 고개를 내려야 합니다. 또 지나치기 쉬운 그 꽃을 보려면 걷기를 멈춰야 합니다.

스스로 힘들고 궁핍한 삶에 지쳐갈 때 그럼에도 그 속에 깃든 사랑과 기쁨, 소박한 행복을 마주하는 순간순간을 생각합니다. 제비꽃을 보듯 낮게 작게 소박하게 그래서 스쳐 지나기 쉬운 겸손한 행복을 제비꽃과 함께 떠올려 보았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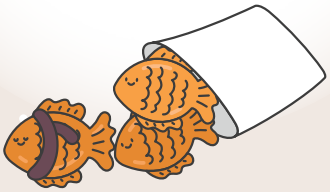
포크송 가수 조동진은 '제비꽃'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너는 작은 소녀였고
머리엔 제비꽃
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멀리 새처럼 날으고 싶어'

소녀와 제비꽃이 서로 만납니다만 둘 모두 어디론가 떠나기에는 제약이 많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웃으며 새처럼 날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 웃음은 자신의 처지를 이미 아는 이의 처연한 웃음이었겠습니다. 조동진의 서늘한 목소리로 제비꽃을 들으면 더욱 그 느낌이 잘 살아나는 듯도 하고요. 떠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일상 속 작은 우리는 그러나 제비꽃처럼 서로에게 소박하게 빛나는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날씨와 심리

겨울에 붕어빵이 더 맛있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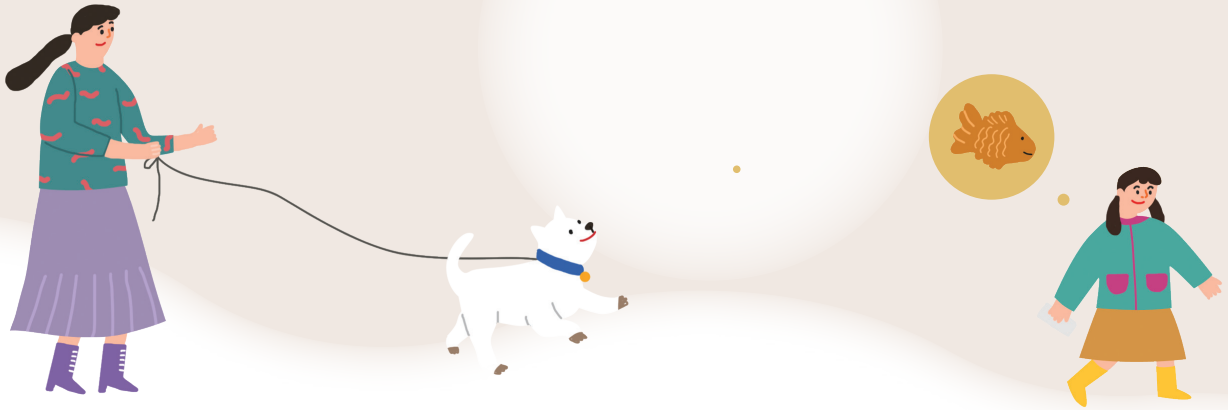
손하림 작가

겨울에는 붕어빵이 유난히 맛있다. 그래서 그런지 올겨울도 붕어빵 열기가 뜨거웠다. 사람들은 한참 붕어빵을 잊고 지내다가, 신기하게도 찬바람이 불자 붕어빵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제야 코로나19를 겪으며 붕어빵 노점상이 사라졌다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붕세권이라는 말도 생겼다. 붕세권은 붕어빵과 역세권의 합성어로, 가까운 거리에 붕어빵 파는 곳이 있다는 의미이다. 왜 겨울에 붕어빵이 더 생각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붕어빵의 추억 때문이다. 겨울이 되면 붕어빵, 어묵, 군고구마 같은 길거리 간식들이 즐거운 요깃거리가 되었었다. 추운 날 집으로 막 뛰어 들어가서 따끈따끈한 붕어빵을 한입 베어 물면,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한 단팥소에 마음까지 녹아내리는 듯했다. 붕어빵에 기분 좋은 감각이 담겨있는 것이다. 붕어빵과 즐거운 기억처럼, 두 개의 관념이 연결되는 것을 심리학 용어로 연합(association)이라고 한다.

겨울과 붕어빵, 그리고 즐거움이 연합되어 있어서 겨울에 붕어빵이 더 맛있는 것이다. 우리는 붕어빵의 노르스름한 색, 모양, 맛을 모두 기억한다. 무엇보다, 한겨울에 붕어빵을 먹었던 상황과 기분이 붕어빵을 먹고 싶다는 마음을 부추긴다. 겨울의 쌀쌀한 찬바람이 기억을 되살리고, 기억이 음식을 향한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거기에 먹고 싶은데 없어서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 붕어빵 생각이 좀 더 간절해지기도 했다.

이렇게 음식에는 감정이 담겨있고, 그 감정들이 기억 속에 쌓인다. 비슷하게, 가끔 몸과 마음이 헛헛하면 집밥이 생각난다. 차가운 김장 김치를



썩썩 썰고, 갓 지은 밥 한 공기를 담아낸 집밥이 그리워진다. 이를 반영하듯 식품회사들은 쉽게 조리할 수 있는 집밥 밀키트 상품을 계절에 맞게 출시하기도 한다. 지칠 때 집밥이 생각나는 이유는 집밥에 연합된 어떤 따스함 때문일 것이다.

진달래꽃 화가라고도 하는 김정수 작가의 그림에는 어머니가 담아주던 하얀 고봉밥의 추억이 스며들어 있다. 김정수 작가는 1983년에 프랑스로 건너가 유학을 시작했는데, 원래는 전위 예술처럼 실험적인 미술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1990년대 초 한국에 귀국하여 초대전을 열었을 때, 그는 세계적인 작가 대신 가장 한국적인 작가가 되기로 작정한다. 그리고 김정수 작가가 찾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바로 '진달래'였다. 진달래는 곧 어머니의 이미지와 연결되었고, 어머니의 하얀 고봉밥은 진달래가 소복하게 쌓인 바구니가 되었다.

이렇듯 음식에 담긴 긍정적인 감정과 기억 덕분에 그것이 더 특별해진다. 개인의 긍정적인 경험과 기억들이 그의 주관적인 현실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그것이 행복감이 된다. 이를 심리학 용어로는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라고 한다. 주관적 안녕감은 쾌락이나 즐거움이라기보다는 마음이 동요할 큰 사건이 없는 편안한 상태에 가깝다. 이러한 소소한 긍정적인 경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이 냉혹하고 무의미한 순간에 생기는 문제를 예방해 주기도 한다.

주관적 안녕감,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이다. 행복 연구의 대가인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 디너(Ed Diener)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작은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낄 때 주관적 안녕감이 향상된다. 행운이 크게 한 방 터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소소한 행복이 잔잔하게 유지되어야 진짜 행복하다는 것이다. 소소한 행복은 미래의 성공과 비교하면 보잘것없게 느껴지거나 상대적으로 작은 의미를 지녀서 지나치기가 쉽지만, 그 영향력은 상당하다. 쌀쌀한 겨울바람이 가시지 않은 초봄, 기분 좋은 기억이 담긴 소박한 음식이 우리 마음을 진달래처럼 화사하게 밝혀주길 기대해 본다.

홍콩 여행 최적기는 2월!

홍콩의 춘절 풍경

박은하 여행작가

"恭喜發財 (쿵 헤이 팟 초이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홍콩의 새해 인사를 전하며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해 봅니다. 홍콩도 한국처럼 음력 설을 쇱니다. 홍콩에서는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를 춘절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뿐만 아니라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서도 춘절을 대규모 명절로 지냅니다. 2월 설날 연휴를 맞아 중화권 또는 동남아 여행을 가는 분들 많을 텐데요. 각국의 춘절 풍경을 살펴보는 것도 이색적인 여행이 될 것입니다. 홍콩의 2월 날씨와 춘절 풍경을 전합니다.

홍콩에도 사계절이 있어요. 1년 중 홍콩 여행 적기로 10월부터 4월까지를 추천해요. 5월 이후부터는 기온과 습도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해 6월에서 8월까지는 그야말로 한증막 같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반면 홍콩의 겨울은 한국의 늦가을 날씨와 비슷한데요. 2월 최고 기온이 19도, 최저기온이 14도 정도라 아침저녁으로 쌀쌀하지만, 한낮 야외 활동을 즐기기 적당한 날씨입니다. 보통 홍콩에서는 난방을 거의 하지 않아 밤에 춥게 느껴질 수 있으니 따뜻한 옷을 챙겨 가는 것을 추천해요.

홍콩의 2월 평균 강수일은 9일 정도로 우산을 챙겨 다니는 것이 좋지만, 평균 강수량이 54㎜ 정도라 여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에요. 한국의 매서운 겨울 날씨를 잠시 뒤로하고 따스한 홍콩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홍콩은 음력 설 기간에 맞춰 각종 축제가 열리고, 세일 폭도 최고조에 이르는데요. 홍콩에서 새해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는 세 곳을 소개합니다.

만모 사원의 새해 풍경(Man Mo temple)

만모 사원은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도교사원입니다. 할리우드로드와 래더거리가 교차하는 곳에 있어요. 홍콩이 영국의 영토가 된 것과 같은 시기인 1847년에 세워졌습니다. 만모 사원은 문신과 무신, 두 신을 모시고 있는데요. 문신은 문자, 문필을 관장하는 성인 문창제, 무신은 삼국지에 등장하는 관우입니다. 액을 쫓는 신을 모시고 있어 복을 빌기 위해 현지인들과 관광객들로 늘 붐비는 곳이죠.

특히 새해가 되면 새해 소망을 빌기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원의 규모는 작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가

웡타이신 사원

기억에 남아요. 천장에는 회오리 모양의 대형 향이 빈틈없이 달려있는데, 향이 타고 있는 동안 소원을 빌면 신에게 전해진다고 해요. 커다란 향 때문에 사원 안은 온통 안개가 낀 듯 연기가 자욱합니다. 재단에 올리는 물건도 각양각색인데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책가방, 문구류, 심지어 교과서를 올려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봄 양파를 제물로 올려놓기도 하는데 봄 양파는 광둥어로 "영리한"이라는 단어와 같기 때문입니다.

웡타이신 사원의 새해 풍경(Wong Tai Sin Temple)

웡타이신 사원은 홍콩의 허준으로 불리는 웡타이신 스님을 모신 곳입니다. 의술의 신을 모신 곳인 만큼 건강을 기원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져요. 특히 새해 첫날 웡타이신 사원에서 향불을 피우면 큰 행운이 찾아온다는 믿음이 전해집니다. 홍콩 사람들은 신년에 웡타이신 사원을 찾는 것을 연례 의식처럼 여기는데요. 사원 안에 들어서면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뿌연 연기와 짙은 향냄새가 퍼집니다.

웡타이신 사원의 화려한 색감은 우리나라의 고즈넉한 사찰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예요. 도교, 불교, 유교 등 세 종교가 함께 있는 점도 특이합니다. 홍콩 사람들은 카우침(kau chim)이라는 점술로 새해 운세를 점쳐보기도 합니다. 여러 개의 막대기가 들어 있는 통을 두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소원을 빌고, 막대기를 뽑습니다. 막대기에 적힌 숫자로 점을 치는 방식이죠.

건강을 비는 사람 외에도 짝사랑을 하는 사람들도 웡타이신 사원을 찾습니다. 신에게 제물을 바친 후 손가락을 빨간 끈에 감고, 관심 있는 성별의 조각상 옆에 끈을 묶어 놓습니다. 이는 사랑의 신에게 중매를 요청하는 것을 상징하는데요. 건강과 사랑은 시대와 민족을 초월해 우리 모두가 원하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홍콩 꽃시장(Flower Market)

새해가 되면 꽃 시장도 분주해집니다. 매년 춘절 무렵 홍콩에서 가장 붐비는 곳 중 한 곳이 몽콕 지역의 꽃시장입니다. 복을 상징하는 꽃을 찾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화려한 꽃은 한 해를 시작하는 시기에서 복을 상징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꽃을 사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꽃시장으로 몰려드는데요. 특히 금귤나무가 인기가 많습니다. 잎이 달려 있는 금귤나무는 재물과 풍요를 상징하고, 부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축복하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새해에 홍콩에 가면 거리와 식당, 소규모 상점은 물론이고 대형 쇼핑몰에서도 금귤 장식을 쉽게 볼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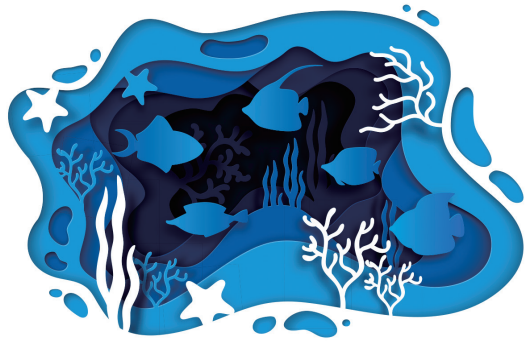
홍콩의 꽃시장은 다양한 꽃을 판매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꽃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꽃시장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홍콩의 모든 꽃이 이곳에서 거래됩니다. 네덜란드, 하와이 등 외국에서 물 건너온 희귀한 꽃 덕분에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눈이 즐겁습니다. 꽃시장 주변에는 금붕어 시장과 새 시장이 있어 함께 구경하기 좋습니다.

TIP. 홍콩의 새해 선물

홍콩에도 설날에 복돈을 주는 문화가 있어요.
홍바오(紅包)는 설날에 현금을 넣어
선물하는 붉은색 봉투입니다.
붉은색이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홍콩에서는 광동어로
'길하다'라는 뜻을 담아
라이씨(利是)라고도 부릅니다.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사원에게,
집에서는 연장자가 아랫사람에게
주는 것이 풍습입니다. 친구들끼리도
복돈을 주고받기도 하는데요.
재밌는 점은 결혼한 사람만
복돈을 줄 수 있어요.

홍콩 꽃시장

바닷속 기후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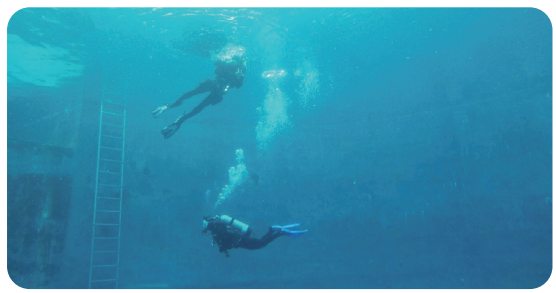
서동균 SBS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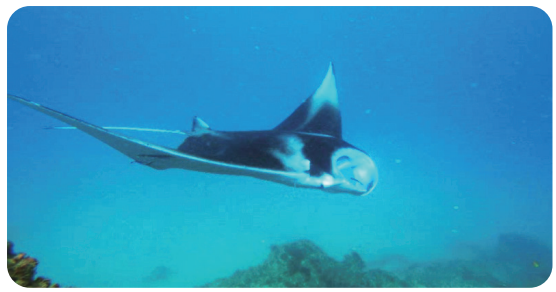
기상기자로 일하면서 기후변화 취재로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오징어 배 밤샘작업을 취재하기도 하고, 구상나무를 찾아 한라산에서 10시간 넘게 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지만, 갈증이 있었습니다.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바다, 그중에서도 바닷속에 직접 들어가 취재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는 다른 바닷속의 생태환경과 기후변화의 영향을 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SBS에는 수중촬영을 전담하는 수중촬영팀이 따로 있는데, 매년 교육과 트레이닝이 진행돼 이 기회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장시간 바다에서 촬영하기 위해서는 스킨스쿠버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수심 10~20m에서 자유롭게 취재하기 위해 수영장과 실제 바다를 오가며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중촬영팀의 수장인 이병주 선배가 instructor 자격증이 있어 멀지 않은 곳에서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워낙 물을 좋아했고, 이때까지만 해도 바다는 그저 설렘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살면서 두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던 곳을 보게 될 생각에 그저 기쁘고 설렐 뿐이었습니다. 정확히 이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절대 당황하면 안 돼”

스킨스쿠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바다는 수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야생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촬영팀 선배들이 습관처럼 하던 말이 있습니다. 바닷속에서는 “절대 당황하면 안 돼” 저 또한 이 말을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새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생각처럼 풀리지만은 않죠.





재작년 수중 훈련 때였습니다. 바닷속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언제나 다이버가 2인 1조로 함께 다닙니다. 긴급상황에서 서로를 돕자는 차원이죠. 지난 훈련 때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2인 1조씩 여러 팀이 함께 다이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의 아름다움에 너무 매혹돼서였을까요. 정신 차려보니 옆에 있던 팀원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몸을 돌려가며 사방팔방 돌아봐도 정말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심 20m, 해수면은 아득히 멀리 있고 제주도 바다 한가운데 홀로 놓였다는 생각에 많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연히 “절대 당황하면 안 돼”라는 말도 생각났지만, 당황하지 않기에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머릿속은 하얀 백지장이 돼 버린 지 오래. 급상승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일단 해수면까지는 올라가야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먹고 막 올라가려는 그때, 어딘가 뻗어온 손길이 절 잡아챘습니다. 안도와 원망이 무한히 교차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뭍으로 올라온 제 표정이 안 좋았나 봅니다. 선배들이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일로만 하면서 고생하지 말고, 꼭 Fun 다이빙을 해봐라”, “그만두면 안 된다”라고요.

아열대종 50%↑, 제주의 바다

작년 9월, 제주도 문섬에서 수중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제주 바다는 이제는 아열대종이 절반을 넘은 상황. 그동안 많이 보이던 라이언피쉬뿐만 아니라, 바다뱀과 파란고리문어 등 맹독성 생물들도 심심찮게 발견됐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온도를 측정해보니 30도가 넘는 곳도 왕왕 있었습니다. 굳이 동남아에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제주도에서 아열대 생물과 산호초 등을 쉽게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특히 라이언피쉬로 불리는 쏠배감펭은 눈에 밟힐 정도로 많이 보였는데, 아열대수산연수소 이승종 연구관에 의하면 본인이 어린 시절엔 보기 힘든 어종이었다고 합니다. 다이빙 때 라이언피쉬를 보면 운이 좋은 다이빙이었다고 합니다. 바다가 변했다는 증거죠.

황폐해진 세계 최대 산호초 지대

해외는 상황이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그중 Great Barrier Reef로 불리는 호주의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를 취재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작년 외부 재단의 지원을 받아 호주의 산호초 지대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팀의 방문 시기가 대규모 백화현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아니었지만, 이미 죽어버린 산호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군락에서 벗어나 여기저기 굴러다녔는데, 직접 만져보니 마치 돌덩이처럼 뼈만 만져졌습니다. 해양 생물의 25%는 산호초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산호초가 죽는다는 건 결국 바다 생태계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실제 가오리나 산호 상어 같은 대형 어류들도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따르면 산호초 근처에 서식하던 상어와 가오리 절반 이상이 멸종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일담이지만 호주 바다의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 뱃멀미를 심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멀미를 했는데, 촬영을 위해 억지로 바닷속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공교롭게도 수중촬영은 이렇게 항상 힘든 기억이 대부분인 것 같네요. 배에 처음 탑승했을 때 호주의 가이드가 건네주던 뱃멀미 약을 호기롭게 먹지 않았던 것이 아직도 후회로 남습니다.

뱃멀미에 때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취재이기도 하지만, 수중취재만큼 기후변화를 알리기에 좋은 취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상기자로서 더 좋은 연구와 기술들을 보도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막을 수 있게 노력하는 최전선에 서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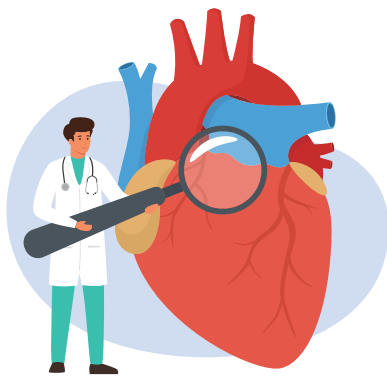
시린 겨울철, 체온 올리고 면역력 지키기

정유정 제15기 기상청 국민정책기자단

지금처럼 찬 바람이 부는 겨울철에는 체온이 떨어지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하죠. 추위로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세포에 할당되는 에너지가 떨어져 면역력이 감소합니다. 병균에 맞서는 힘이 약해져 감기, 독감, 폐렴 등 각종 감염 질환에 잘 걸리게 되는데요. 겨울철 적정한 체온 유지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에 우리 몸의 건강 신호들이 보내는 위험 반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추위가 몸에 미치는 영향

추위로 체온이 떨어지면 혈압을 상승시켜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실제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여름철에 비해 추워지는 겨울에 더 많은데요. 체온이 떨어지면 실제로 통증도 더 심해진답니다. 추우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이 수축하게 되는데, 평소 안 좋았던 관절이나 척추 주변에 혈액순환이 잘 안되면서 통증을 더 느끼게 돼요. 그래서 겨울철 건강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체온 유지에 힘을 쏟아야 하죠.



겨울철 건강, 특히 이런 분들은 주의하세요

평소 혈관 질환이 있다면 겨울철에 더 위험하다는 사실! 고혈압, 말초 혈관 질환자, 동맥경화증 등과 같이 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저체온증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겨울철, 활동이 줄고 추운 환경에 노출되면 혈관 벽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오르는데요. 체온 조절의 핵심 기관이 바로 혈관이기 때문이죠. 겨울철에는 뇌졸중과 심장질환에 따른 사망률 역시 증가합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열 손실을 막기 위해 혈관이 수축하는데, 혈관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혈관의 수축과 팽창이 원활하지 않아 추위가 닥쳤을 때 저체온증에 빠질 위험이 더 크다고 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과 같은 내분비계 질환이 있어도 대사 능력이 떨어져 열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데요. 또한 뇌졸중과 파킨슨병이 있는 사람은 체온을 조절하는 뇌의 시상하부 기능이 떨어져 있어, 체온 유지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체지방이 적고 대사율이 떨어져 열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저체온증에 취약하기에 겨울철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방법

몸을 자주 움직이고, 운동으로 혈액순환

체온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몸을 움직이는 것인데요. 몸을 활발히 움직이면 심장이 뛰고, 손끝 발끝, 신체 말단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체온이 올라가죠. 특히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은 겨울에도 꾸준히 몸을 움직여야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답니다.

따뜻한 성질의 음식 섭취

성질이 따뜻한 음식을 자주 먹는 것도 몸의 열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계피는 따뜻한 성질로 경맥을 통하게 해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수정과를 따뜻하게 마시거나, 차에 계피를 얹어 우려내는 방법도 좋겠죠. 그리고 카레에 함유된 강황은 성질이 매우 따뜻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어혈을 풀어주며 통증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뛰어나 추운 겨울철에 섭취하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일정한 식사

식사 시간과 식사량이 일정하지 않은 등 불규칙한 식사 습관은 기초대사량을 낮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초대사량이란 인체가 휴식 상태에서 스스로 발열하는 대사 능력인데요. 기초대사량이 낮으면 체온 유지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음식을 꼭꼭 씹어먹는 버릇이 몸에 좋으며, 식사 시간 역시 20~30분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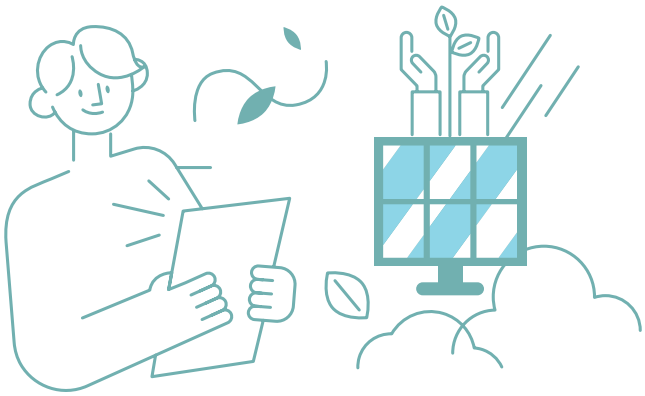
겨울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운동을 주저하게 되죠. 하지만 추운 날씨를 극복하면, 운동 효과는 다른 계절보다 더 큽니다. 겨울에는 열량 소모가 더 높기 때문이에요.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도 10% 남짓 증가하고 열을 발산하기 위해 근육을 수축하는 과정에서 지방 에너지가 연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요한 것은 운동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인데요. 운동 전에 마시는 물은 몸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지나치게 차거나 뜨거운 물보다는 적당히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수분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사람이 추위를 느끼는 이유는 피부에 존재하는 감각신경이 외부 온도를 감지하고 척추를 통해 뇌로 온도 변화를 전달하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 뇌는 '춥다'라고 인지하는 것이랍니다. 정말 신기하죠? 체온을 높이는 생활 습관으로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기상청 블로그에 실린 것을 편집한 것입니다.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기상청 블로그를 방문해 주세요. |

8시의 남자들,
날씨 알려주는 남자

김문용 광주지방기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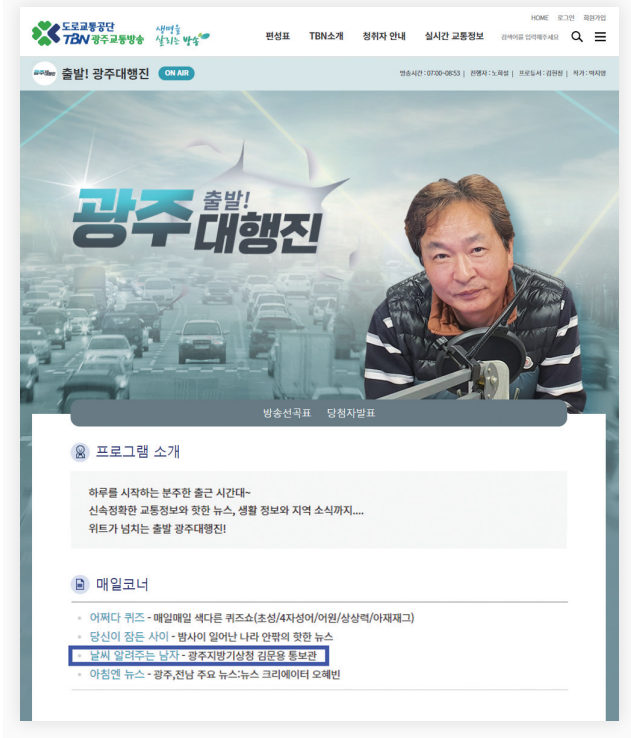


매일 아침 출근하면 출근길 청취자분들을 만나는 게 설렌다. 지난해 3월 광주교통방송에서 봄 개편에 맞춰 날씨를 기본으로 한 재밌는 소재를 주제로 방송해보자는 의뢰가 들어왔다. 매일 생방송으로 연결한다는 게 너무 부담이 커서 "일주일에 한 번 어때요?" "안 됩니다!" "일주일에 두 번은?" "안 돼요!!" 일주일에 걸쳐 밀당이 오가던 중 개인적으로 울렁증을 해소할 기회라고 보았고, 기관 홍보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아 한번 부딪쳐 보자는 마음으로 방송을 결정했다. 출근 시간대 청취율이 가장 높은 08시에 코너가 마련되고 '8시의 남자들/날씨 알려주는 남자', 일명 '날알남'이 탄생한 것이다.

"광주지방기상청 김문용 통보관을 연결하겠습니다. 통보관님! 안녕하세요. 오늘과 내일의 날씨 살펴볼까요." "오늘과 내일은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 적설은 5~10cm입니다. 쌓인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온다고 하니, 눈의 종류가 궁금해지는데요?" "눈은 싸락눈, 함박눈, 가루눈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방송하고 나면 여기저기에서 방송 잘 들었다는 문자가 온다. 방송원고를 만들 때 힘들었던 기억이 말끔히 사라지는 순간이다.

내가 직접 방송원고를 만들어서 전날 작가에게 보내면 방송에 맞게 일부 수정되어서 돌아오고, 당일 아침에 예보를 최신화해서 방송한다. 방송원고는 그날 날씨와 관련된 자료를 여기저기에서 확보하는데 대변인실에서 제공하는 신문스크랩, 각종 기고문, 기후변화 관련 자료가 많은 도움이 된다. 위험기상 시에는 재난방송에 준하는 날씨 방송을 하고 평소에는 기상 상식, 기후변화, 기상기후정책을 소개하는데, 올겨울에 확대되는 서해안고속도로 도로살얼음, 전북에서 시험 운영하는 눈의 무게 예보, 날씨알리미 앱 등을 소개하다 보면 청취자들의 반응이 느껴진다. 프로그램 진행 도중 전달되는 제보나 사연 문자로 청취자들의 반응을 살피며 방송에 보람을 느끼고,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하고 있다는 것이 체감된다는 진행자의 멘트에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한다.

한번은 목이 쉬었는데, 진행자가 “통보관님, 어제 노래방 다녀오셨나요?” “아닙니다. 어제 야구장에 다녀왔습니다.”라고 하니 여러분들께서 빠른 회복을 빌어주셨다. “이번 주말 남해상으로 낚시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청취자의 질문엔 “너울성 파도가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 자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알려 주는 등 청취자와의 소통도 즐거움 중 하나다. “통보관님, 동백꽃이 날씨와 관련이 있나요? 통 매칭할 수가 없네요.” “기후변화에 따라 꽃이 피는 시기가 달라지고 있으니, 관련이 있지요.” 방송을 시작한 지 벌써 10개월이 넘었지만, 아직도 밀당을 하고 있다.



평소 사무실에서 일반전화로 방송을 연결하는데, 워크숍이나 개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울 때는 휴대폰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방송이 펑크날 일은 없다. 그렇지만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제2, 제3의 방송 전담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단 한 번의 대리 방송이 있었는데 조문 차 멀리 떠나서 있을 때였다. 출상하는 시간이 방송 시간과 겹쳤기 때문이었다. 가을 개편에 방송 시간을 30분 당겼지만, 평소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으며 지역민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시간 따위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이다.

지난여름 역대급 강수량과 폭염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예상될 때는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께 안부 전화를 드리도록 안내한 게 인명피해 최소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청취자분들의 반응이 좋아 가을 개편에도 살아남았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방송하는 것과 방송원고 작성에 아직도 어려움이 많지만, 앞으로도 상세한 날씨 정보 제공과 기상지식 전파, 기상기후정책 소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20살, '기상청 사람들'로의 첫걸음

6개월간의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수습 근무 후기

김 시 연 기상레이더센터

안녕하세요!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에서
6개월간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정규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새내기 공무원입니다.
막연히 바라왔던 기상청 공무원의 꿈을
이루게 된 지도 어느덧 6개월이 지나고,
어엿한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요. '기상청 사람들'로의 첫걸음을
내디딘 생생한 후기를 적어보았습니다.

임명장 수여식

날씨로 전하는 마음

안부를 전하거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는 날씨만 한 주제가 없는 듯합니다. 날씨는 하늘이라는 한 지붕 아래에 사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날씨에 빗댄 인사말은 이제는 익숙해진 표현이지만 어릴 적부터 참 좋아했던 말들입니다. 특히, 친척 어르신들이나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시던 그날의 날씨를 담은 안부인사 중에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문장이 많습니다. 그냥 전하면 자칫 형식적일 수 있는 문장을 날씨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날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관심은 저를 기상청으로 이끌었습니다.

20살에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방법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일반행정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3년 7월부터 기상청에서 수습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른 나이에 근무를 시작하다 보니 제 입직 경로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균형인사제도의 일종인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 전형을 통해 기상청 공무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특성화고, 전문대학 등의 졸업생 중 전형을 거쳐 선발된 적격자를 국가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입니다. 응시 직렬과 관련된 학과의 이수, 교과 성취도 우수, 학교장 추천 등의 응시자격을 갖추면 서류와 필기, 면접 전형을 거친 후, 국가직 부처 배치를 통해 합격자 각자의 적성과 흥미에 부합하는 부처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팀원분들과 함께한 저녁식사

행정직 선배님의 멘토링

첫 번째 미션, 기상레이더관측소 청원경찰 채용

기상청에서의 근무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맡겨진 미션은 기상레이더관측소 청사 방호를 위한 청원경찰의 채용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자로서 내 손으로 누군가를 뽑는다는 사실이 조금은 부담도 되었는데요. 부담감 속에 첫 미션을 수행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면접전형을 진행했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히 외부위원 위촉부터 면접장 세팅, 평정표 등 서류 준비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도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은 커져만 갔습니다. 면접 시작 직전, 외부위원들에게 면접 시 주의사항 등 사전 안내를 드리는데 준비했던 말임에도 긴장했던 탓에 경직된 채로 안내를 이어갔는데요. 많이 버벅대기도 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시작이었지만 경청해주신 덕분에 자신감을 얻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자들의 면접이 모두 끝나고 결과를 정리하며 위원님들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채용 분야에 대한 설명이나 면접 관련 참고자료가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어 진행이 매끄러웠다.”, “나중에 기상청에서 위원으로 또 부르면 고민 없이 와주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상청의 일원으로서 기관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겨드린 것 같아 뿌듯한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살, MZ세대의 눈으로 본 기상청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지낸 6개월이었지만,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던 날은 더욱 특별했는데요. 팀원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임용을 축하해주셨고 준비하신 임용떡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수습 기간이 끝나면 그간의 감사를 담아 시보떡을 돌리는 게 일반적인 공직사회의 전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되려 축하를 담은 임용떡을 챙겨주셔서 더욱 특별한 공직생활의 출발이 될 수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맛있는 저녁밥을 사주시며 임용 축하와 더불어 앞으로의 공직생활에 대한 조언도 해주셨는데요. 과분한 축하를 받으며, 앞으로 기상청에서의 공직생활은 막연히 생각했던 보수적이고 딱딱한 공직사회와 달리 자유롭고 따뜻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용떡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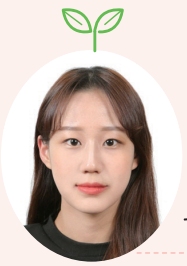
수습직원으로 근무하는 6개월은 제게 적응과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업무의 기회를 주셨던 덕분에 여러 종류의 업무를 경험해보며 제가 부족한 부분과 잘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는데요. 기상레이더의 발전 과정을 주제로 기상청 블로그 글을 작성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참고해 원고를 작성하며 저 또한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 많이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상 관련 전문지식 면에서는 아직 부족함이 있다고 느껴졌는데요. 앞으로 40년 넘는 공직생활의 시간이 남은 만큼 열심히 배워나가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싶습니다.

“하늘을 친구처럼, 국민을 하늘처럼” 매일 출근길마다 마주치는 기상청의 슬로건이자, 앞으로 제가 기상청 공무원으로서 마음에 새기고 이뤄가고픈 방향성입니다. 남은 40년, 기상청의 슬로건처럼 하늘과 밀접하고 국민에 헌신하는 기상청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슬기로운 인턴 생활

수도권기상청

안녕하세요. 수도권기상청 기후서비스과 청년인턴 김나영, 이현지입니다. 저희는 2023년 기상청 청년인턴 모집을 통해 2023년 9월 1일부터 수도권기상청 기후서비스과에서 근무했습니다.



김나영

"학생으로는 겪지 못했던
더 넓은 사회에서의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도권기상청 청년인턴 김나영입니다. 긴장하며 첫 출근을 했던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6개월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저 또한 '기상청' 하면 '날씨'와 '예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인턴 생활은 기상청은 예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는 곳임을 알아가고 직접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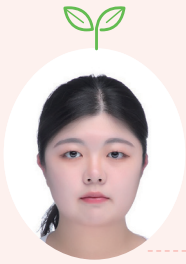
인턴 기간 동안 영상매체를 활용한 기상교육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기후변화 소통 환경 구축을 위한 콘텐츠를 다루는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은 부족했던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을 채우는 기회가 됐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기획하며 기상과 관련되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들은 어느 하나 당연한 것이 없으며 많은 이들의 고뇌와 참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느꼈습니다. 또 워크숍, 세미나, 박람회의 참여는 사회라는 공간에 놓여 있다는 게 더 와닿기도 했습니다.

또한 회사 생활을 하며 올바른 리더, 직장 동료와의 적절한 소통, 피드백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가짐과 직장에 대한 소속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랜 기간 일해온 동료와의 헤어짐을 지켜봤고, 업무의 진행과 처리 과정을 배우고, 국민을 위해 업무를 진행하고 고군분투하는 모습까지. 학생으로는 겪지 못했던 더 넓은 사회에서의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기후서비스과 과장님, 사무관님, 계장님, 주임님들과의 소통은 나아갈 진로에 대한 고찰, 살아갈 삶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업무적인 내용이 아닌 삶의 경험, 먼저 발을 디딘 직장인으로서 해주신 조언들을 값진 경험으로 발판 삼아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싶어졌습니다. 아직 미숙한 제가 기상청의 한 구성원으로 지내 온 시간이 잘 믿기지 않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수도권기상청에서의 많은 새로운 인연들에게 잊지 않고 감사함을 전합니다.

신규자 임명식, 인턴소개

수도권기상청 소통워크숍



이현지

“업무들을 여러 관점에서 다양하게 봐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도권기상청 청년인턴 이현지입니다! 저는 좋은 기회로 대학 졸업을 앞두고 기상청 청년인턴에 지원하여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인턴 기간 동안의 주요 업무는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및 기후변화 유튜브 교육 콘텐츠 개발이었습니다. 메타버스는 입사 초반에 진행되었고, 기후변화 유튜브 교육 콘텐츠 개발 업무는 그 후로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 업무들을 하며 저는 일을 하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닌 여러 관점에서 다양하게 봐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업무들이 그렇듯이, 본인이 생각한 바와 또 다르게 여러 관점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인턴 생활을 하면서 박람회, 워크숍, 세미나 등 쉽게 접하지 못하는 곳들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기상산업박람회에서는 타 기관들의 기상산업을 볼 수 있었으며, 여러 세미나에서는 기업과 기상청 간의 협업들을 볼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수도권기상청에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가지를 얻은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로 문제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4학년 휴학을 하고 졸업을 앞둔 저는 진로에 대해 끊임 없이 고민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학과에서는 막연히 기상청 입사 준비 과정만 말할 뿐이었고, 그 이외의 정보들은 잘 얻지 못했습니다. 청년인턴으로 있으면서 주임님들께 많은 조언을 듣고 기후서비스과에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현업, 관측 등 여러 직무들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여러 일들이 있다는 점을 알았고, 진로를 정하는 것에 대해 더 자세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기상정보시스템’, ‘수치예보시스템’과 같이 외부적으로 볼 수 없었던 시스템들에 하나하나 들어가 보며 위성영상, 레이더 영상들, 자료들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는 시간 틈틈이 공부하고 여러 정보들을 얻으며 자기계발을 하면서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를 옆에서 도와주셨던 기후서비스과 과장님, 사무관님, 계장님, 주임님들과 수도권기상청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숙했던 사회생활의 첫 단추를 잘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지방기상청

작년 9월, 기상청에 청년인턴들이 설레는 첫 출근을 했습니다.
고향도 학교도 다른 3명이 모여 만들어 낸
3인 3색 인턴 생활기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김성희

"부산·울산·경남 지역 호우 사례를 분석하다"

안녕하세요!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 인턴 김성희입니다. 저는 방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호우 재난 사례를 통계 및 분석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부울경 지역의 과거 호우 피해 상황을 조사하여 통계 자료를 생성하고, 강한 호우 사례를 중심으로 기압계 분석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생산한 자료들을 향후 유사한 위험기상 상황이 예상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끔 하여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과 피해 예측 및 효과적인 대책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여러 기상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기상청 방재업무의 중요성과 사회적 영향을 몸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기상 모니터링

기상청 입사를 꿈꾸며 특히 예보과에서 근무해보는 것이 목표였던 저에게 이번 인턴 경험은 목표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다질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예보과에 속해 함께 일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은 앞으로의 성장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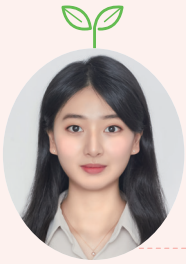
정주현

"웹페이지를 디자인하다"

관측장비 점검

안녕하세요, 부산지방기상청 관측과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주현입니다. 저는 부산지방기상청 누리집의 콘텐츠 개선 및 웹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누리집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의 인턴 기간 중 핵심 업무는 '부산시티투어 날씨 정보' 서비스 개선입니다. 저는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메인화면을 디자인하고 시티투어 노선도를 현행화하였으며, 노선별·지점별로 정확한 날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리 정보를 추출하여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기상관측자료들이 잘 수집되어 예보업무에 활용되고 대국민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전산, 통신 업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상을 전공하지 않아 기상청 업무에 대해 몰랐지만, 이번 인턴 생활을 통해서 기상관측, 예보업무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고 기상청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기상청에서 색다른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신 부산청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서현

“기후변화과학을 알리다”

반갑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청년인턴 김서현입니다! 저는 부산청 내 기상홍보관, 찾아가는 기후변화과학 강사단 수업 등 기후변화 이해확산 교육 현장을 지원하며, 프로그램 개선 아이디어 제시, 교구 가이드 작성 등을 통해 콘텐츠 개발·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눈으로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획일화된 교육이 아닌 대상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게 돕는 것이 저의 주된 업무입니다.

2022년도의 저는 부산지방기상청에 진로 교육을 받으러 온 학생이었습니다. 교육은 알차고 유익했으며, 기상청 직원분들은 멋졌고 친절하셨습니다. 그날이 인상 깊었던 저는 2023년 청년인턴 채용 공고를 보고 부산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를 지원하였고, 인턴이 되어 그날 봤던 직원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인턴 생활은 기대보다도 행복하고 유익하여, 저의 꿈인 ‘기상청에서 일하기’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인턴이 아닌 ‘기상청 사람들’로 만나 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단소중학교 중점 시범학교 방문

“소통과 화합의 즐거움을 배우다”

저희 부산지방기상청 인턴들은 맡은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소통과 화합의 가치를 더해 더욱 즐기로운 인턴 생활을 보냈습니다. 대청동 부산기상관측소, 창원기상대 등으로 현장 체험을 나가 다른 부서 직원분들의 업무를 접하여 타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근무지가 달라 쉽게 만날 수 없는 직원분들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6일, 지역 주민분들과 온정을 나누고자 참여한 봉사활동에서 각자의 손길이 모여 하나의 팀워크를 조성하는 것을 보며 화합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 과정에서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인턴 생활 속에서 체험한 의미 있는 경험들은 저희를 한층 더 성장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잊지 못할 추억으로 저희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저희는 소중한 경험과 추억들을 간직하며 다음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일바이크 체험

창원기상대 & 기상안전속삭임

사랑의 김장나누기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2024년도 기상청 시무식

(1월 4일)

기상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도 기상청 시무식'을 개최하고, 2024년을 현재의 '기후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유희동 기상청장, 신년 현충원 참배

(1월 4일)

유희동 기상청장은 기상청 간부 7명과 함께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유희동 기상청장, 한파 취약계층과 현장 소통

(1월 19일)

유희동 기상청장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을 찾아 난방에 연탄을 사용하는 한파 취약계층에 방한 마스크와 연탄을 배달하고, 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근정포장 수상

기상청 지진화산국 최원철 주무관은 지진관측소 간 자료수신 기술과 지진정보시스템 성능 개선으로 유관기관 지진관측자료를 지진조기경보에 활용 가능토록 확대(32→93개소)하고 지진조기경보서비스 발표시간 단축(관측 후 50→5~10초)에 기여하는 등 예산 절감 및 지진재해 경감에 크게 이바지해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Platform

기상청에 소식지 <하늘사랑> 외에도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기상청 온라인 채널과 이달의 인기 있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이달의 추천 콘텐츠 제41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안내 숏츠

드라마 '웰컴투 삼달리' 속 기상기후 사진전이 진짜였어요?

#기상청공모전 #대상_500만원

얼마 전, 드라마 '웰컴투 삼달리'가 따뜻한 삶의 메시지를 전하며 막을 내렸는데요. '기상청 사람들'에 이어 기상청 안팎과 예보관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그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회에서 주인공 조삼달이 기상청 사진전 당선 작가로 '人: 내 사람, 그리고 날씨' 전시회를 열어 주변인의 삶을 응원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이렇게 날씨 기록은 소중한 일상을 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올해 41회째를 맞은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을 통해 자신만의 기록을 뽐내보면 어떨까요? 오는 2월 13일(화)까지 나만의 폴더, 휴대전화 사진첩 속 또는 새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공모전 홈페이지(www.weather-photo.kr)로 접수하면 참여 완료! 전문가와 대국민 심사를 통해 환경부장관상 등 40점, 총상금 1,800만 원을 수여합니다. 기상청 유튜브에서 역대 수상작과 공모 요강을 확인하세요.

웹진
kma.go.kr/kma

〈하늘사랑〉의 모든 내용은 기상청 행정홈페이지의 기상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늘사랑〉을 PDF로 내려받고,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웹진보기

기상청 행정누리집 〉 자료실 〉 기상간행물

소셜미디어 (SNS)

기상청은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국민 여러분과 날씨를 매개체로 일상을 나누고, 다소 어려운 기상과학부터 기상상식, 반드시 알아야 하는 위험기상, 날씨와 연관된 트렌드 그리고 소소한 이벤트까지 다양한 콘텐츠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SNS 채널과 친구가 되어주세요!

기상청 대표 SNS 채널

- 페이스북 www.facebook.com/kmaskylove
- 유튜브 www.youtube.com/KMA0365best
- 블로그 blog.naver.com/kma_131
- 트위터 twitter.com/kma_skylove
-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ma_skylove

오늘, 당신의 날씨

우리는 같은 날씨 안에서도
저마다 다른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땠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들려주세요.

김은경

눈 쌓인 겨울 바다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만 들리는 여유로움과 한가로움이 있어 더없이 좋았어요. 도시에서의 분주함과 상념은 어느덧 파도에 쓸려가고 나만의 재충전과 힐링의 시간을 즐겼답니다.

박은빈

구름에 가려져 일출을 보지 못했지만, 그것마저도 좋았던 새해 첫날이였습니다.
올 한 해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소원성취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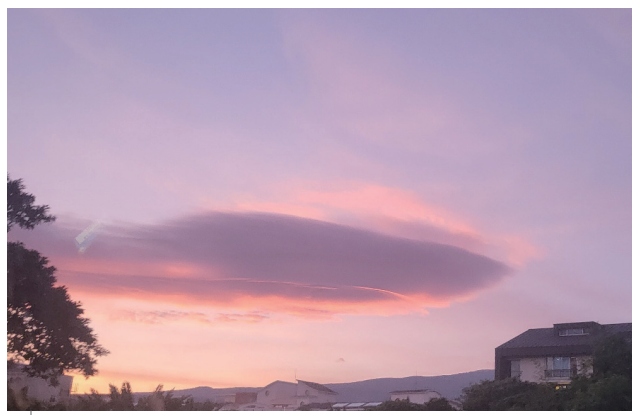
발왕산의 겨울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평생 살면서 본 겨울 풍경 중 최고로 멋졌습니다!
아무렇게나 카메라를 대도 절경인 겨울 풍경 맛집!

박금영

폭설이 내린 출근길의 어느 날입니다. 언덕 위로 차가 이동할 수 없어서 차량은 모두 평지에 주차한 후 모두들 도보로 이동했답니다. 걷다 보니 근무지의 아름다운 겨울의 모습에 행복한 아침이었답니다.

우향화

인천의 푸르고 넓은 바다 위 조그만 섬에 잠깐 앉아 엄청나게 광활한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어떻게 움직이고 활동함이 더 편하고 좋을지 고민하며 심각하게 고민하는 오리가 있어요.



임용오

바람이 많이 불어오던 어느 날 한라산 위로 커다란 UFO가 붉은 노을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에 저 거대한 구름 우주선을 타고 날아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여 방법

자신의 일상이 담긴 날씨 사진 한 장과 간단한 소개 멘트를 이메일(kmanews@korea.kr)로 **2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된 분께는 온누리상품권(1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응모하실 때는 **성함·연락처·주소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기상청에서는 상품권 지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목적): 성함, 연락처, 주소(본인 확인 및 상품권 지급)
- 보유 및 이용기간: 1년(개인정보 수집·이용 후 즉시 파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위 사항은 상품권 지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할 경우 상품권 지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본 코너에 선정된 사진은 발표 해당호에 한해 게재되며, 저작권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저작권 규정을 어겨 응모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분들부터 두텁게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

공 통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23년 1600cc 미만, 자동차가액의 50%를 소득으로 산정

'24년 2000cc 미만, 소득 산정에서 제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급지 개편 및 공제금액 상향

'23년 3급지/1억 150만 원~2억 2,800만 원

'24년 4급지/1억 9,500만 원~3억 6,400만 원

주택수선급여 수급가구 침수 방지시설 추가 설치 지원

청 년

청년 근로·사업소득 40만 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확대

24세 이하 → 30세 미만

2023년 → 2024년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공제금액 20만 원 추가 확대

40만 원 → 60만 원

2023년 → 2024년

장애인·어르신

중증장애인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의료·식사·돌봄·주거 등 제공 재가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73개 시·군·구 연간 6백 명 → 228개 시·군·구 연간 2천 3백 명

2023년 → 2026년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20만 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확대

아동·청소년 양육 가정

다인(6인)·다자녀(3인) 가구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 인하

1600cc 이상, 월 100% → 2500cc 미만, 월 4.17%

2023년 → 2024년

교육활동 지원비 등 교육급여 11%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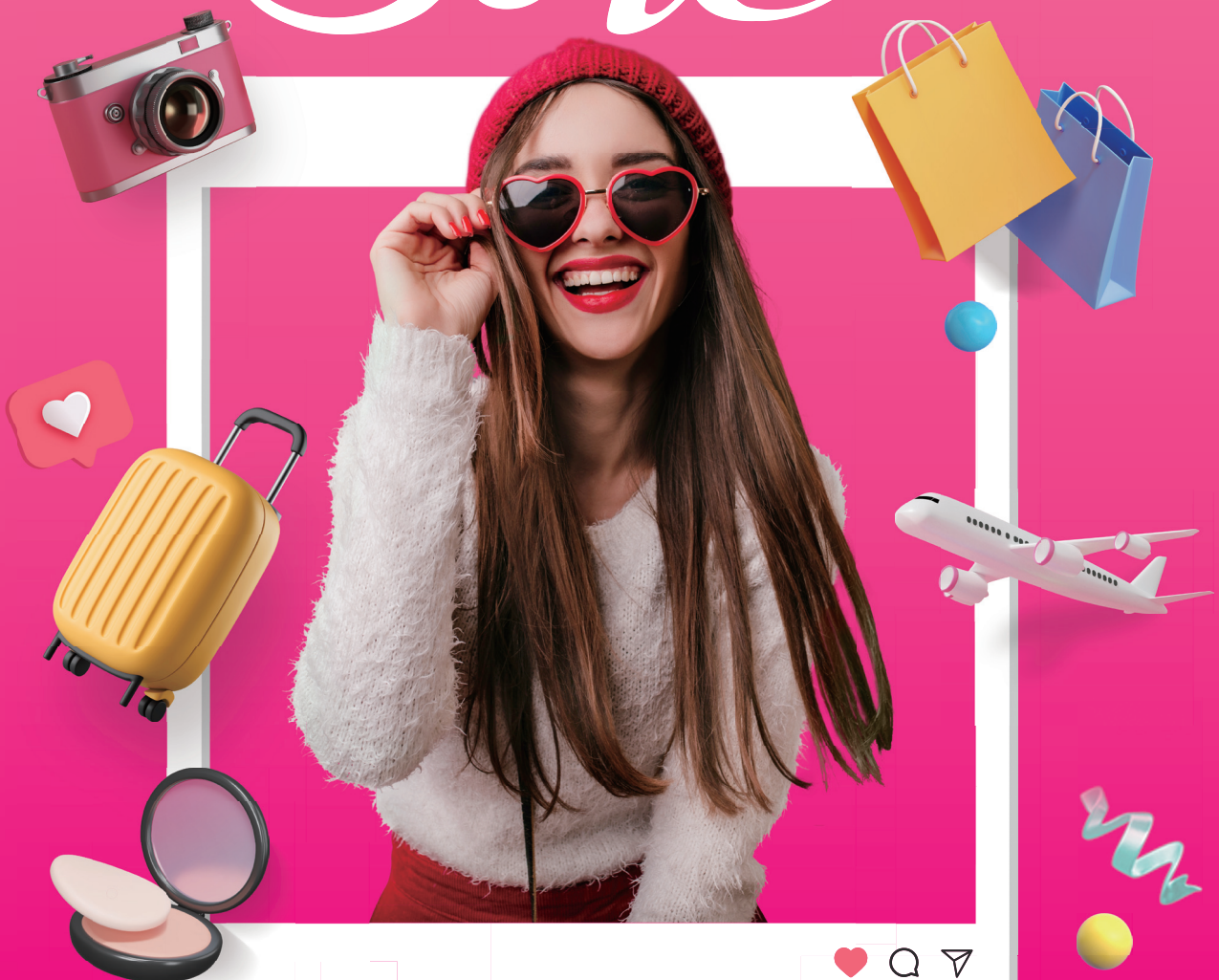
초등학생	'23년 415천 원	'24년 461천 원
중학생	'23년 589천 원	'24년 654천 원
고등학생	'23년 654천 원	'24년 727천 원

VISIT KOREA YEAR 2023-2024

2024.1.11~2.29

Korea Grand Sale

Korea Grand Sale



Your Special Moment in Korea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VISIT KOREA COMMITTEE

기상청

한파 위험은 사전준비로 예방하세요

한파 관련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주변과 공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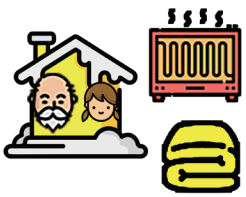
추위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건강관리 유의**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질환자 등 확인

보일러, 배관, 난방기구 등 **점검**하고 동파 방지 **보온 조치**

정전과 단수를 **대비**한 용품 구비 및 생수, 생활용수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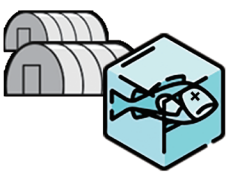
한파특보 발표 시 안전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야외활동 자제 및 **난방**과 온도관리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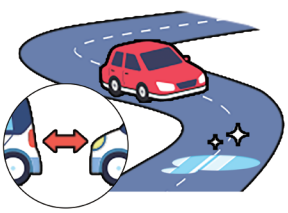
저체온증, 동상, 낙상사고 등 **건강 유의**

수도계량기, 수도관, 보일러 배관 등 **동파대비**



농축수산 분야 언 피해 및 **저온 피해** 대비

차량 **월동용품** 준비 및 자동차 상태 **점검**



평소보다 **저속** 운전하고 **차간거리** 확보로 사고 예방